

익산의 빛... 오늘 서동축제 개막

29개 읍면동 깃발 퍼포먼스
서동선발대회 등 볼거리
백제 투어 등 즐길거리 다채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서동의 꿈, 익산의 빛 '익산 서동축제 2018'이 4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들의 행복·안녕을 기원하는 무왕제례를 시작으로 화려하게 개막한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축제 마케팅의 일환으로 어린이날을 포함하고 대한민국 봄 여행주간과 겹치는 황금연휴 기간에 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서동축제는 대표프로그램 보안과 확충을 통해 역사인물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을 대폭 확충 운영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비해 왔다.

29개 읍면동 깃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백제 합수식'이 서동축제 개막을 알리고 예선을 거쳐 선발된 무왕의 후예들이 '서동선발대회'를 통해 관객들과 마주한다.

개막축하공연은 박현빈, 울랄라세션,



서동의 꿈, 익산의 빛 '익산서동축제 2018'이 4일 개막한다.

에디킵, 리브하이, 레이디 티, 윤수현, 나미에 등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이 나서 무대를 꾸민다.

무왕의 출정식과 행렬, 무예시범으로 이어지는 '무왕행차퍼레이드', 시립예술단이 꾸미는 화려한 뮤지컬 '주제공연 천명'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다양한 공연과 공연이 서동무대와 선화무대를 풍성하게 채

운다. 이밖에도 용을 타고 백제 투어, 줄타기 공연 및 체험, 유물 발굴 및 마캐기 체험, 가족 대항 탑 쌓기 대회, 서동마 스피드 3종 경기, 서동사생대회, 서동백일장, 백제의복체험, 백제 무사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서동의 꿈, 익산의 빛이라는 주제에

맞춰 서동의 이야기를 담은 저수지 유등을 비롯해 서동선화 사랑의 빛터널, 정사조동, 일루미네이션 산책로 등 축제장의 밤을 빛으로 화려하게 수놓으며 서동선화 EDM파티는 전문 DJ와 댄스팀이 매일 밤 다른 테마로 축제의 흥을 돋워 야간 체류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축제장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교통 대책도 철저히 준비했다.

미륵사지 광장을 축제 전용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축제장까지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시내에서 축제장까지는 3개 코스의 셔틀버스가 수시로 운행된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은 서동축제홈페이지(<http://seodong.ik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셔틀버스 탑승장으로 활용되는 시내버스 승강장마다 자세한 노선 안내문이 부착됐다.

시 관계자는 "백제왕도 익산의 브랜드 가치와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축제를 준비했다"며 "시민이 먼저 즐기고 축제장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맛·멋·흥을 모두 선사하는 서동축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원광대 총동문회가 최근 익산시 영등동 소재 위치한 동보성 3층 연회실에서 오후 6시경 원광대 동문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화합하는 동문회 만들 것”

원광대 총동문회 (익산지회장 이병기)는 최근 익산시 영등동 소재 위치한 동보성 3층 연회실에서 오후 6시경 원광대 동문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이병기 원광대 총동문회 익산지회장, 취임식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 맺도록 노력할 것”

다”고 다짐했고 “익산의 발전은 곧 원광대학교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회장은 “동문들과 상호 교류 및 협력하는 산학협동의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기창 총동문회장(전 광업진흥공사 감사), 최규성 고문(전 총동문회 회장), 총동문회 부회장(나국현 군장대학교 석좌교수,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이사, 신해석 및 고현규), 전 군단장 중장 임국선, 전 재경 동문회장 박계훈, 이은길 대전지회장, 신동일 정읍지회장, 최동우 군산지회장, 임원빈 여수·순천지회장, 강희중 전주지회장과 익산지회 부회장(강병용, 김일중), 원광효도병원 이사장 오우성 참석 한 가운데 익산지역 200여명 동문들과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 김관기 익산선립조합장, 전 전주교육장 이재경, 전 익산시의회의장 권석중 등 내빈들이 축하해주는 가운데 원광대 총동문회 익산지회장 이취임식이 성황리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금기창 총동문회장(전 광업진흥공사 감사), 최규성 고문(전 총동문회 회장), 총동문회 부회장(나국현 군장대학교 석좌교수,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이사, 신해석 및 고현규), 전 군단장 중장 임국선, 전 재경 동문회장 박계훈, 이은길 대전지회장, 신동일 정읍지회장, 최동우 군산지회장, 임원빈 여수·순천지회장, 강희중 전주지회장과 익산지회 부회장(강병용, 김일중), 원광효도병원 이사장 오우성 참석 한 가운데 익산지역 200여명 동문들과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 김관기 익산선립조합장, 전 전주교육장 이재경, 전 익산시의회의장 권석중 등 내빈들이 축하해주는 가운데 원광대 총동문회 익산지회장 이취임식이 성황리 치러졌다

이날 원광대 총동문회 익산지회장으로 취임한 이병기 회장(이취임식)은 “취임을 통해 익산동문회 밴드개설과 웰레등반대회를 개최하여 동문상호간 친목과 소통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욱 동문간의 화합하는 동문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이윽고, 이 회장은 “모교의 발전과 명예 선양의 길을 마련하겠

이날 원광대 총동문회 익산지회장으로 취임한 이병기 회장(이취임식)은 “취임을 통해 익산동문회 밴드개설과 웰레등반대회를 개최하여 동문상호간 친목과 소통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욱 동문간의 화합하는 동문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유네스코 교육분과위원 위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강경숙(사진) 교수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교육분과위원으로 위촉됐다고 3일 밝혔다.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교육분과, 인문사회·자연과학분과,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 등 3개 분과가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맡고, 각 분과는 16~18명씩 해당 관계기관의 장, 교문위 국회의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총회 및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토의에 부친 사항, 각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기획 및 토의 등이며, 강경숙 교수는 앞으로 3년간 위원 활동을 한다.

한편, 강경숙 교수는 지금까지의 탁월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 등에도 등재됐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경제위기... '정부는 불구경 하러 왔나?' 무능 성토

군산경실련, 추경TF 회의 관련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올해 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및 해고 근로자들이 정부의 무능을 성토했다.

지난 3일 군산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2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대응 TF 4차 회의는 지역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안도 없는 보여주기 식의 간담회였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조선소 가동 중단, 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대책 없이 아직까지도 군산경제실태조사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 서지만 집행위원장은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는 군산시민이나 전북도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정부는 외면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사태 파악을 하느니 군산의

분위기를 보러 왔다는 회의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대안이 없으면 차라리 내려오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 위원장은 “4월 5일 고용위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추경예산 의결이 지연돼 지원책이 전무하다고 말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에 찾아가서 할 일을 왜 군산에서 예산 타령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간담회에 조선소 및 자동차 협력업체 실질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협력업체 근로자 대표로 협력업체 임원이 참석했는데 과연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인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업체 전 임원이 실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물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2명 중 1명에 달

하는 47%가 일자리 상실 위기에 있고 군산시 인구의 22%(가족 포함 6만여명)가 생계 위기 상황에 놓여 민심의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밤 FOOD ZONE 시범운영

군산시는 오는 5일부터 진포해안테마공원 앞에 푸드트레일러 7대를 설치해 차별화된 야간먹거리와 다양한 테마문화 콘텐츠로 '군산 밤 FOOD ZONE'을 시범운영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군산 밤 FOOD ZONE'은 오는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청년사업자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오픈을 시작하며 영업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심혈을 기울인 푸드트레일러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돼 청년사업자들의 열정과 인내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어린이 행복특권 도시 군산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Hub GUNSAN | 군산시 GUNSAN CITY